

목양의 역사(1)

칭기즈 칸이 유럽을 공략하기 위하여 원정을 나섰을 때 이끌고 간 병참물자가 면양이었다. 풀을 뜯어먹으며 이동해 갈 수 있는 좋은 병참물자였는데, 고기와 양의 젖(羊乳)은 식량으로, 가죽은 의류나 야전 천막용, 혹은 깔판으로 이용하면서 유럽을 석권하였던 칭기즈 칸의 중요한 군수 물자였다.

마찬가지로 그 후 유럽을 휩쓸었던 로마제국은 귀족, 원로원, 군인 등을 위한 고급 의류소재로 양모가 중시되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의 원정대도 칭기즈 칸의 본을 따라 군대가 양떼를 몰고 가는 것은 상식이 되었었다. 중국의 진시황도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양떼가 넘지 못할 만큼의 높이를 최저 기준으로 삼았다는 설이 있다.

양의 원산지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라고 소개하였는데, 이곳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아시아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바빌로니아, 그리스를 거쳐 로마 등을 지나 유럽으로 전파되고, 한편 동쪽으로 이동하여 간 것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하여지고, 우리나라를 거쳐 멀리 캄차카 반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하여 목양이 시작된 것이 기원전 6천년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다.

특히 로마제국은 원정을 하면서 유럽에서의 양의 종류 교류에 크게 공헌하였는데, 목초가 풍부한 나라에서는 양을 기르게 하고, 노동력과 물이 풍부한 지방에서는 모사나 모직물을 만들도록 지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양 사육과 모직물 만드는 기술을 유럽 전체로 전파하는 역할을 하였다.

양종의 개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나라가 스페인이다. 페니키아인들은 스페인에도 양을 갖고 와서 목양이 시작되었다고 하였는데, 1세기에는 로마인들에 의하여 로마의 고급 양종인

타렌틴 중 암컷과 스페인 토착 양 수컷을 교배하여 당시로서는 최고급 양모를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스페인 메리노의 원형이라는 학설도 있다.

5세기에 멸망한 로마인들을 대신하여 스페인을 점령한 북아프리카 목축 민족인 무어(Moor)족에 의하여 스페인의 목양산업은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결과가 되었다.

목양은 한자리에서 이동하지 않고 붙박이로 양을 기르는 에스탄테스(estantes, stationary sheep)와 여름에는 북부의 산악지대에서, 겨울에는 남부의 따뜻한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사육하는 트랜스휴먼테스(transhumantes, travelling sheep)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무어족 지배하의 약 700년간 트랜스휴먼테스가 자리를 잡았다. 이것이 오늘날의 메리노 양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로마, 무어족의 관여에서부터 1,300여 년이 지난 스페인이 스스로 양종 개량에 손을 대기 시작하였고, 15세기 무렵에는 제법 개량된 메리노종이 탄생하는데, 영국의 코츠월드(Cotswold)종과의 교배설이 있기는 하지만, 11세기에는 이미 영국의 코츠월드가 스페인에 도입되었다고 전해지며, 기록에 의하면 1464년에는 영국의 에드워드 4세가 영국에 코츠월드를 기증한 기록이 있다.

그러나 스페인 메리노 양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는 아직도 명확한 자료가 없다. 메리노(merino)란 어원도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분명치 않은데, 옥스포드 대사전에서는 스페인어로 과거를 의미하는 'MAJORINUS'에서 왔다는 설도 있지만, 다른 문헌에서는 항해를 뜻하는 'MARINO' 설과 목양에 적합하다는 스페인의 고원지대 'SIERRA MORENA'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나아가 유목민인 'MOEDINAS' 또는 무어족인 'BENI MERINES'에서 왔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다. ♣ (공석봉)